

# 광주 불법 증·개축 원룸 무더기 고발 '파문'

## 50대 건축사 "감리보고서 허위 작성 311건"

### 또 다른 건축사 고발엔 대대적 전수조사 불가피

건축주와 감리를 맡은 건축사들이 광주 신도시 원룸 건축 과정에서 불법 증·개축을 일삼았다는 한 건축사의 진정 사건이 경찰에 수백 건 접수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이 현재 311건에 대한 건축법 위반 혐의 여부를 조사 중이지만 여태껏 원룸 증·개축 과정에서 불·탈법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대적 전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목

소리로 나오고 있다.

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에 사는 건축사 K(53)씨는 지난 7월 초 불법 증·개축 등 건축법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광주지역 건물 311곳의 주소를 담은 고발장을 광주지검에 제출했다.

광주지검은 사건을 관할 경찰서인 서부·북부·광산경찰로 각각 이첩했다. 서부경찰청의 경우 20건, 북부경찰

211건, 광산경찰 80건이 배당됐다.

K씨는 고소장에서 "건축주가 건물 층수를 높이거나 일부 용도를 변경하는 등 증·개축을 해놓고 감리 담당 건축사들과 짜고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해당 구청의 눈을 속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 건물의 경우 광주 건축사협회가 지정한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건물을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위조해 해당 구청에 제출한 뒤 건축허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K씨는 "조만간 건축법 위반이 의심되는 건물에 대해 고발장을 더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건축사협회로부터 발급 받지 않고 위조한 뒤 이를 각 구청에 제출한 것(사문서 위조)인지, 건축주와 건축사가 서로 짜고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건축법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찰은 각 구청이 불법 증·개축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정서를 토대로 300건이 넘는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피의자가 된 건축사들의 또 다른 고발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시건축사회에 등록된 건

축사는 모두 270여 명이다. 현행 건축법에 관한 사용승인제도는 건물 내외부에 대한 검사는 건축사가 맡고, 구청은 서류심사만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대다수 건축주는 우선 적법하게 건물을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임의로 불법 증축하거나 건축사와 짜고 서류상오만으로 합법적인 건물을 만들어 사용승인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청들이 6개월에 한 번씩 표본지역을 선정해 점검을 하거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일체 단속을 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05분 해질 18시 58분 달출 02시 54분 달몰 16시 47분

**가을 성큼**  
일교차 큰 가운데 가끔 구름 많았다.

광주	구름맑음	19/30℃
목포	맑음	20/28℃
여수	구름맑음	21/28℃
나주	구름맑음	17/30℃
완도	구름맑음	19/31℃
강진	구름맑음	17/30℃
해남	구름맑음	17/31℃
장흥	구름맑음	17/31℃
순천	구름맑음	17/29℃
영광	구름맑음	18/28℃
진도	구름맑음	17/29℃
전주	맑음	18/28℃
군산	맑음	17/28℃
남원	구름맑음	16/29℃
혁신도	맑음	21/2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위험 높음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위험 높음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5~2.5m 위험 높음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목포 00:05 05:50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목포 12:02 17:43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5~2.5m 여수 07:15 01:23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9:43 13:1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화)	4(수)	5(목)	6(금)	7(토)	8(일)
날씨						
최저/최고	18/29	17/29	20/29	22/26	21/28	21/29

**범죄 피해자 온라인으로 사건처리 검색 가능**

**법무부 '원스톱 서비스'** 을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대검청과 함께 이 서비스를 개발했다.

범죄 피해자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또는 모바일 앱(모바일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사건 조회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개 중범죄 피해자에 대해 우선 서비스를 실시하고 앞으로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아빠, 잘 가세요"** T-50 훈련기 추락사고로 소년친 노세권(34·공사 50기) 중령과 정진규(35·공사 51기) 소령의 영결식이 열린 지난 30일 오전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 마련된 영결식장에서 노 중령의 부인과 두 자녀가 헌화하며 관에 입맞춤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역 열차 사고 기관사·여객전무 과실 조사**

대구역 열차 사고와 관련 무궁화호 기관사와 여객전무의 과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사고는 KTX가 본선을 완전히 지나 갈 때까지 측선에서 멈춰 있어야 할 무궁화호가 너무 빨리 출발해 KTX 열차의 옆을 부딪치면서 일어났다.

1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사고 당시 무궁화호가 있던 측선의 신호기에는 빨간색 정지등이 정상적으로 켜 있었다. 하지만 무궁

화호 여객전무는 출발을 지시했고 열차 기관사와 여객전무의 말만 듣고 신호기를 따로 확인하지 않은채 출발해 사고가 났다.

여객전무가 정지신호에 왜 출발을 지시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호기를 잘못 봤을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31일 오전 7시15분께 대구역에서 서울로 향하던 무궁화 열차와 KTX 열차가 추돌했다. /연합뉴스

## 한빛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 부실 보수 '사실로'

**미승인 방식 용접 밝혀져**

한빛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가 부실 보수됐다는 의혹(광주일보 8월29일 7면)이 사실로 확인됐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발전소는 한빛 2호기 제20차 계획예방정비에 기간에 진행된 증기발생기 수실 균열을 용접할 때, 보수 업체인 두산중공업이 승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한빛원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처음 스테인리스 스틸로 3차례 용접했지만 용접 부위의 균열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이를 '인코넬690'으로 바뀌어 용접했고, 이마저도 균열이 발생하자 한수원 및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인코넬600'으로 용접 작업을 완료했다는 것이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인코넬600'이 더 고급 재질이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원전 당국이 승인되지 않은 자체 반입은 물론, 이를 이용해 보수 작업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사전에 적잖이 반입은 물론, 이를 이용해 보수 작업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사전에 적잖이 점점 커지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완연한 초가을... 일교차 주의하세요

지난달 말부터 광주·전남지역은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 아침 최저 기온은 19.8도, 낮 최고기온은 30.5도까지 올라가는 등 광주·전남 대부분의 지역이 하늘은 맑고, 일교차가 컸다.

기상청은 이번 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22~2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

는 6일에는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에 한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1일 오전 발생한 제16호 태풍 '위투(YUTU)'는 일본 사토로 동쪽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백양사 새 방장 지선 스님 추대**

대한불교 조계종 고불총림 백양사 4대 방장에 지선 스님(사진)이 추대됐다.

백양사는 지난 30일 오후 백양사 내 교육관에서 스님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중 총회를 열고 수좌 지선 스님을 최종 추대키로 결정했다.

지선스님은 오는 10월 예정인 조계종 중앙총회의 인준을 거치면 정식으로 방장 소임을 맡게 된다.

지선 스님은 지난 1961년 16세에 출가한 뒤 백양사, 제주 관음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DREAM LAND** http://www.DLJPN.co.kr

**추석연휴 무안 ↔ 오사카 항공 전세기**

**출발일시 9월 19일 07:00 무안출발 - 21일 23:30 무안도착**

**온천휴양 + 힐링코스** 와카야마 디럭스 온천 숙박 3일 135만원

**역사탐방 + 휴양코스** 오사카, 나라, 교토 숙박 3일 129만원~

**가족동반 위락시설**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3일 135만원

**광주 아시아여행사 062) 228-3000** **광주 샘투어 062) 515-7667** **광주 삼성드림투어 062) 951-1360** **목포 모두모아여행사 061) 453-0008** **목포 여행나라 061) 262-3400**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행질증류는 상가상품 가격의 별도 지불되며 적용되는 환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 2010-4 호(광주광역시 남구청) ■ 2억원 보증보험 가입 ■ 숙소 : 일급호텔이상 ■ 교통편 : 항공